

〈2021년 11월 25일 목요일 새벽, 주 말씀〉

1. 〈그 지혜〉와 〈명철〉과 〈사랑〉을 하늘과 땅에 덮고 사시는 ‘하나님과 성령님’ 이시다.
2. 깨닫고 알지 못할 때는 〈하나님〉과 〈성령님〉을 너무 ‘멀고 먼 존재자’ 로 생각하게 되느니라. 깨달아라. 그래야, ‘자기 옆에 계신 하나님과 성령님’ 을 알게 되느니라.
3. 〈하나님〉과 〈성령님〉과 통하려면, ‘그 마음에 맞는 생각’ 을 잘해야 되느니라.
4. 성령님은 〈육신의 모습〉을 보고 대하지 않으시고, 〈성령님을 사랑해 주는 그 마음〉이 ‘육신의 모습’ 으로 보여 대하신다.
5. 〈약한 자〉도, 〈강한 자〉도 ‘하나님과 성령님’ 께 붙어야 살아남아진다. 그러므로 저마다 ‘마음’ 도, ‘생각’ 도, ‘몸’ 도 붙어 살지니라.
6. 〈마음과 뜻과 목숨〉을 다 바쳐 행해야, 전능하신 하나님과 일체되어 ‘그 주관권’ 에 들어가 살게 되느니라. 일부만 바쳐 행해서는 심령이 뒤집어지지 않나니,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〈영원한 운명〉을 놓고서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행하여라.
7. 〈사탄을 이기는 것〉이 무엇이냐. 오직 ‘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’ 만 쳐다보고 일편단심 가는 것이니라.

8. <세상을 이기는 것>이 무엇이나. 오직 ‘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’ 께만 마음을 주고 가는 것이니라.
9. <기도의 생기>가 들어가 살아나라. 따라오라.
10. 내가 깊은 한 도(道)를 깨달았나니, <전능자 하나님>은 ‘사랑하는 자’가 있다면 늘 같이하기를 원하고 좋아하신다. 이를 깨닫고 행하여라.
11. <동행의 도(道)>다. ‘삼위와 함께하는 기쁨’이다.
12. <서로 사랑하는 자>는 ‘둘’이 아니니라. 둘로 쪼개지면, <사랑하는 자>라도 ‘그 심정’을 못 맞추느니라.
13. 하나 되지 않고, 혼자 하다가 ‘문제’가 생기게 된다.
14. <하나님의 섭리역사>는 결국 ‘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’니라.
15. <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하나 되지 않은 자>는 ‘자기중심의 길’로 가게 된다.
16.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 되면, ‘그 생각’이 떠오른다. ‘그 행함’이 이루어진다.